

피부과에서의 병용 금기 약물

이 애 영

을지대 피부과

함께 사용할 경우 다른 약물의 흡수, 대사 및 배설에 영향을 주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효과를 저하시키는 경우는 병용을 금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음식물과 약물의 상호작용에서도 가능한바 음식이나 위산에 의한 약물 흡수의 장애나 증가 또는 소장의 cytochrome P-450 (CYP) 3A4 억제제인 자몽에 의한 CYP 3A4에 의하여 대사되는 약물의 혈중 농도 증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약물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약물을 병용하여 처방할 경우 반드시 이러한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약물과 약물의 상호작용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CYP 3A4에 의하여 대사되는 약물인데 이는 이 동위효소가 40% 이상의 약물의 대사에 관여할 뿐 아니라 간 이외에도 위장관에 존재하여 약물의 흡수 및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CYP 3A4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은 antihistamines (terfenadine, astemizole), benzodiazepines (midazolam, triazolam), immunosuppressive agents (cyclosporin, tacrolimus), anticonvulsants (carbamazepine), calcium antagonists (verapamil, nifedipine, felodipine), statins (lovastatin, simvastatin, atorvastatin, cerivastatin) 등 다양하며 이 동위효소를 억제하는 약물을 병용할 경우 혈중 농도가 상승함은 짐작할 수 있다.

혈중 농도의 상승은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부작용 중 특히 위험한 것은 QT interval의 연장과 ventricular arrhythmia인 torsades de pointes의 유발로 후자는 생명에 위협이 된다. 피부과에서 흔히 처방하는 antihistamines (terfenadine과 astemizole)는 prokinetic cisapride (prepulsid, propulsid, coordinax) 및 macrolides 약물들과 마찬가지로 세포의 potassium channel을 block하여 QT interval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약물로 CYP 3A4 억제제와 병용 사용시 이러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Astemizole은 이미 국내에서 판매가 중단되었으므로 terfenadine 사용시 주의를 요한다.

CYP 3A4의 억제제로는 macrolide계 항세균제 (clarithromycin, erythromycin, troleandomycin), azole계 항진균제 (fluconazole, itraconazole, ketoconazole), 항우울제 (nefazodone, fluvoxamine), HIV protease 억제제 (amprenavir, indinavir, nelfinavir, ritonavir, saquinavir), amiodarone, cimetidine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피부과에서 주로 처방하는 azole계 항진균제 중 itraconazole과 ketoconazole은 특히 여러 가지 약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ketoconazole은 국내의 제약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반면에 itraconazole은 가장 흔히 처방되고 있는 약물의 하나이므로 상호 작용을 하는 약물에 대하여 알고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